

사찰을 찾을 때면 원효스님이 창건했다는 이야기와 인연담을 자주 듣게 된다. 왜 그런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국문학자 오대혁씨가 펴낸 <원효설화의 미학>(불교출판사)은 원효스님과 관련된 설화를 집성하고, 잃어버린 정서와 미학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살핀 책이다. 이 책은 1300년 동안 전해져 오는 원효스님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석문, 승전(僧傳)에서부터 사지(寺誌), 지방지, 현전 구비설화까지 기존의 연구자료에 수십편의 설화를 발굴 수록하고, 번역·주석까지 달았다. 이 가운데 '분황사 원효성사에 대한 제문', '용문사 용문사 전설' 등 52편의 설화를 부록으로 실어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효스님에 대해 피상적 부분적으로 접근해 왔던 여러가지 저작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그의 특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별 설화들을 모아 탄생, 고행, 오도 등의 일정한 서사구조로 전승의 양상을 도표화하여 변천사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 고행과 오도, 과거와 해탈, 대중교화행 설화, <금강삼매경론>의 찬술, 참사·사명 유래 설화, 관음보살과의 만남, 이적(異蹟)설화, 영원한 삶과 시적(示寂) 등 여덟 유형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낱말로 살피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높였다. 이 책은 원효스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설화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그의 행적이나 인물상을 밝히려는 안주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만한 원효스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경로를 추적해 원효스님이 말하고자 했던 '일심사상' 등 스

님의 불교사상을 밀도 있게 풀이하고 있다. 불교용어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일반적인 불교설화의 특성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적당한 도움을 준다. 저자는 원효설화의 수용의식에서 불교설화들의 형성과 변천을 사적으로 정리하고, 수용자에게 대한 집중적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란 무엇이며, 미적 특질이 분별과 차별의 세계를 넘어선 통일과 화합을 지향하는 실천행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원효설화의 존

재 이유라는 것이 저자의 주된 요지다. <원효설화의 미학>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풍성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원효설화가 지향한 진리가 차이와 차별을 지양한 통일과 화합, 그리고 부단한 실천에 있음을 잠정적 결론으로 삼았다"며 "인종 민족 환경 전쟁 등 엄존하는 차별과 분별의 세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효설화는 우리에게 해답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대만 남회근씨 '금강경 강의'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

대만 총통의 국사를 역임한 불교계 원로 남회근씨(81)의 <금강경 강의>(문예)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980년 대만 심방서원에서 철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 불교학자 등을 대상으로 행한 <금강경> 강의록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이에 맞는 예언기 및 문학작품의 내용까지 곁들여, 석가모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여행다니는 기분이 들게 한다. 특히 술술 풀여가는 저자 특유의 재담이 일반인들에게도 무리없이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와의 대화를 마치 연극대본처럼 실감나게 설명하고, 광범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심화시켜주고 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번역과 분별심을 곁들여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대의까지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신원봉씨는 "여러차례 정독하면서 삶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강경』을 이해하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평했다. 값 2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야원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가천도	우 톨	효림
2	달리아 리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는사람
3	불교입문	조계종원부	조계종출판사
4	무소유(개정판)	범 정	범우사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풍경	원 성 이	래
7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이 남 덕	불광
8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10	육조대경	광 덕 불	광

구입문의: (02)737-0695

예음은 생각이라는 우리나라의 옛말입니다. (Tel 02-322-8422)

원효설화서 배우는 화합의 지혜

오대혁씨 '원효설화의 미학'

금석문·僧傳 등 자료 살살이 뒤져 탄생-고행-오도 등 서사구조로 정리

“참선하는 이는 첫째로 무상함이 덧없이 빠르고 나고 죽는 일이 큰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허스님의 '진흙소의 울음' 중에서) 선사들의 짧은 법어 한마디는 장황한 설명

큰스님 13인의 법문집

'영혼은 바람처럼...'

을 결들이지 않아도 단박에 중생을 깨우친다. 도서출판과 철학이 펴낸 <영혼은 바람처럼 삶은 강물처럼>은 우리나라 선사들의 법문집. 경허스님의 '진흙소의 울음' 만공스님의 '유어(遺語)' 등 13선사들의 대표적인 법어 42편을 담았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선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출판사측은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모두 참다운 인생, 나를 찾는 인생, 바로 참 나를 깨닫는 목표를 두며 올바른 삶을 중시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사를 서로 진리와 사랑과 믿음에 초점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큰스님들의 법문집을 내놓게 됐다"고 출간의도를 밝혔다. 값 7천원.

시로 적은 구도열

지공스님 시집 '그 눈에 눈물이...'

시인으로 재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지공스님이 시집 <그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마음에 무지개가 없다>(동해)를 펴냈다. 스님에게 있어 '시(詩)'는 하나의 수행이며 번뇌를 끊고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통로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도열을 모두 98편의 시에 담았다. 값 5천원.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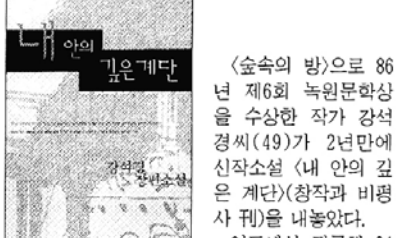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역사 종교 철학 문학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도서를 뽑는 '제32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98년 9월1일부터 99년 8월31일 발행된 책이며 접수는 30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받는다. (02)735-2703~4

해외신간

▲깨달음의 경영= 일상 가운데 가장 맑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터. 이곳을 경쟁보다는 이해, 반목보다는 타협이 가득한 곳으로 가꿀 수는 없을까? 여기에 해답을 찾고 싶은 불자라면 아롱 린포제의 <깨달음의 경영>(Enlightened Management: Bringing Buddhist Principles to Work)를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은 티베트불교의 명상법 가운데 일터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불자들에게 유익하다. Inner Traditions Intl Ltd 펴낸 ISBN: 089281876X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이라= "현대에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명상이 더 필요하다" 정숙과 침묵을 따른 기존의 명상에 반기를 든 스티브 헤리스의 신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이라>(Getting to Where You Are: The Life of Meditation)가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 순간의 삶 속에서의 '존재인



강석경씨 신작소설 '내안의 깊은 계단'

년부터 천년고도 경주에 살면서 고분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았다. 이번 소설은 삶과 죽음의 순환, 강처럼 유장한 인생 그리고 그것과 얽어지는 사랑애이다. 30대가 어떤 정신적 방황과 사랑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느 연애소설과 달리 읽어내기가 만만찮은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인연으로 얽힌 4명의 주인공들을 통해 욕망만을 뒤쫓는 남녀관계와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그것들은 어떻게 부대낄 수 있는가를 신명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멸과 재생이 되풀이되는 윤회하는 삶의 기나긴 길을,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듯 고고학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값 7천5백원.

신'과 '깨달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헤리스는 "명상은 교리와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P Tarcher 펴낸 ISBN: 0874779820 ▲하루 한 구절= 2천5백년동안 불자들이 애독해온 <법구경>을 새롭게 색인, 포켓용 경전으로 엮은 <하루 한 구절>(Reflections of Buddha for Every Day)이 발간됐다. 미국에서 대중적인 명상 지도자 데이비드 크로스웰이 발간한 이 책은 법구경 내용을 분석,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마음챙김(正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전으로 영어를 익히고 싶은 국내 불자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Journey Editions 펴낸 ISBN: 1885203861

'불교저널' 10월호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 '재가불교와 신도교육'과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태국·일본 불교' 등 국내외 불교계 주요 현안들을 심층 조명한 불교저널 10월호가 나왔다.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에서는 개국 준비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더 이상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없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또 '재가불교와 신도교육'이란 주제로 목장배(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강건기(전북대학교 철학과)교수의 대담을 통해 기존의 재가불교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교운동이 일어나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해외 불교 특집으로 최근 러시아 불교계의 인터넷이 전한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인용, 러시아 불교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비중있게 실고 있다. 이밖에 '21세기 군포교의 나아갈 방향' '불교문화재의 수난 그 실상과 대책' '연기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라' 등이 수록돼 있다.

'불광' 300호 특집

1974년 11월 창간한 월간 <불광>이 10월호 300호를 발행했다. 이번 특집호에는 정린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덕스님(자비의 전파 회장), 이남덕 교수(이화여대), 김현준 원장(불교신문) 등이 참석한 300호 발행 기념 특별좌담 '불교 어떻게 믿고 행할 것인가'를 수록, 실천적 보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간 불광 25주년 그 흐름을 찾아서인 김재영 법사(청보리회)가 '흔들 속의 한 줄기 녹색 신호등'으로 불광의 역사와 창간 의미를 규정했다. 월간 <불광>은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며,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들의 사자후를 오늘의 언어로 전하고 있다.



'불교와 문화' 가을호

불서 번역의 문제를 특집으로 심도있게 다룬 계간 <불교와 문화> 가을호가 나왔다. 불전 번역과 한역경전의 한글번역 문제점과 팔리어 원전 번역이 한역경전 번역보다 좀더 원전에 가깝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이번 특집은 △불전 번역과 우리의 현실-법장스님(백양사 강원 강사) △불경 번역 오류의 예와 대안-조현종 교수(경북대) △불교계 번역의 문제와 제도적 과제-김은중 강사(연세대) △<불경> 프로젝트 시급하다-진현중(자유기독교) 등이 다.



교계 진단 코너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한 불교 문화영화의 현재를 '철인 사천왕'을 제작한 김혁 감독이 과감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민속학자 주강현씨의 '불교와 풍속의 사회사 결집승 편'은 '유랑집단과 불교의 사회풍속사'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솝 우화보다 쉽고,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우화 '팔만대장경'

팔만 대장경 시리즈 1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0가지 이야기

팔만 대장경 시리즈 2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0가지 동물 이야기

팔만 대장경 시리즈 3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0가지 보리 이야기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팔만대장경을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팔만대장경 시리즈

700년에 걸친 완벽한 보존의 신비를 가진 팔만대장경. 누구나 그 속에는 어려운 불경 이야기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영리한 이리, 바보 같은 사냥꾼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팔만대장경을 펼치면 바로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이제 숨겨져 있던 세상의 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현중 편역 각권 값 7,800원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0가지 이야기